

LOCAL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나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생태물길 공원·광역철도 등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첫 자문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박재영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위원 간 논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자문위원회는 나주시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비롯해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나주시문화재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전체 기사 보기]

시는 위원 자문 사항을 검토해 분야별 시정 현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각종 전문 분야에서 높은 경륜을 가진 전·현직 기관·단체장, 학계 전문가·교수, 공직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

진도, 친환경 온탕소득장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등 3곳

진도군은 벼 농사철을 맞아 고품질 벼 육묘 생산을 위해 6월 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군내면 송산리), 서부(임회면 관천리), 조도(조도면 창유리) 총 3개소에서 친환경 온탕소득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종자 소득은 종자를 통해 전입되는 카다리병, 깨씨무늬병, 세균성 잎마름병, 도열병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종자 소득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도 뛰어난 온탕 소득법이 주로 사용되며, 60도의 물에 벼 종자를 10분간 담근 후 찬물로 열을 식히면 된다. 일반 소득 약제보다 뛰어난 방제 효과는 물론, 약제 구매 비용이 절감돼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주로 활용됐다. 한편, 진도군은 철저한 벼 종자 소득을 위해 친환경 벼서 온탕 전용 소득장을 서부사업소에 신축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노란 유채꽃 핀 청산도 걸으며 힐링하세요”

청산도슬로걷기 축제, 내달 5일부터 한 달 간 개최

노란 유채꽃밭과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완도 청산도슬로걷기 축제’가 다음달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 간 개최된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요’라는 주제로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 등 3가지 테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에서는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야, 청산가자’를 시작으로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 슬로길 11코스 중 4개 코스를 걷고 스탬프를 4개 이상 받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청산도에서 걸이로다’와 청산도를 걸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친환경 킷으로 교환해주는 ‘SNS 인증 플로깅’ 등으로 구성됐다. ‘낮밤 놀아보세’는 청산도 구들장 연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놀이방앗간’,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대료 한 공연 ‘청산도 유랑단’, 관광객과 주민 DJ가 함께하는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 ‘빔바위 기(氣)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록하세’ 프로그램에는 움직이는 포토존, 청산도 내 숙박 이용 및 특산물 구입 5만원 이상 영수증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선물 줄게, 영수증 다오’, 축제를 즐기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 1년 뒤 도착하는 느린 엽서 ‘청산도 달팽이 엽서’ 등이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는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은 물론 섬 여객선 빈값, 완도치유페스티벌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며 “신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른 섬 청산도에서 밤낮없이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을 빛낸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나주=김예균 기자 knk1831@



프리미엄 강진쌀, 미국시장 진출 성공

20t 선적...총 100t 규모 수출

강진쌀이 몽골에 이어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19일 강진군농협통합RPC과 함께 미국 동부 지역으로의 강진쌀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엔 선적된 물량은 새창무 품종 쌀 20t으로, 향후 총 100t 규모까지 수출이 이뤄진다. 강진쌀의 미국 진출은 아시아계 및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쌀 소비가 증가하는 현지 상황이 반영됐다. 특히 건강식 선호 트렌드와 맞춤형 유기농 및 프리미엄 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강진쌀이 미국 시장의 선별을 받게 된 것이다. 강진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미국 내 유통망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몽골,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시장 역시 가공업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미국 수출은 강진쌀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강진군은 최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19일 강진군농협통합RPC과 함께 미국 동부 지역으로의 강진쌀 선적식을 가졌다.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강진쌀의 우수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지역 농업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앞으로 수출, 유통 관계자와 협력해 강진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에서 강진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이진옥 기자 sa4332252@

‘춘란 메카’ 함평, 난 명품 대체전 성료

박현기씨 작품 ‘중투화 웁비’ 대통령상 수상

함평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난 명품 대체전’에서 함평 난연합회 박현기씨의 작품 ‘중투화 웁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난(蘭)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난 명품 대체전은 지난 22일 개막해 이날 폐막했다. 이번 대체전은 총 450여 점의 화훼품과 난엽예술품이 출품됐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현기씨는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총 181점에 대해 시상했다.



함평에서는 춘란 판매전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함께 운영했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전시회가 한국 춘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윤교 기자 6263739@gwangnam.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his section contains a detailed table of legal auction announcements for real estate. It includes columns for auction number, location, property details (area, usag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such as residential lots, commercial buildings, and agricultural land, with specific details on lot size, zoning, and location. The text is organized into sections for '매각물건', '매각물건 목록', and '매각 조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정춘호